



## 오 록 도 행 복 칼 럼

박일호  
전 대연정보고  
(현 부산세무고) 교장

감만동 집에서 2km 정도 산능선 고개를 넘으면 모래구짜가 나오고 그 주변으로 조그마하고 깨끗한 솔개해수욕장이 있었다. 나는 다섯 살 무렵 모래구짜에서 수영을 배웠다. 6·25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됐을 때였다. 이제 겨우 허리까지 오는 바다 물속을 풍덩거리거나 손 잡고 수영을 할 때다. 그때만 해도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이라 또래 동무들의 나이도 다섯살에서 일곱살 정도였고 나처럼 다들 수영은 하지 못했다.

어느 날 작은 형의 친구들이 우리 또래 다섯 명에게 작은 고깃배에 타라고 했다. “너희들도 작은 배에 타고 가서 형들이 배에서 낚시하는 걸 구경하면 재미있을 거야.” 우리는 모두 잘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신나게 배에 올랐다.

선창으로부터 어느 정도 나오자 수심이 깊고 파도에 배가 출렁거렸고 형들은 낚시를 시작했다. 당기는 낚시 줄에 도다리나 도미 새끼 등이 잡혀 올라 왔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서 형들은 우리들의 팔, 다리를 잡아 팽개치듯 사정없이 바다 속으

## 감만동 솔개해수욕장과 모래구짜의 추억

부두 들어서기 전 ‘무릉도원’ 닮은 해안 정취

‘벽해상전’의 거대한 변화가 못내 아쉬워

로 집어 던졌다. 나는 이제 바다에 빠져 죽는 게 아닌가 하는 공포에 정신없이 내려가다가 본능적으로 손짓, 발짓으로 헤엄 쳤고 바닷물을 두어 바가지 마신 뒤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짙 바닷물을 마신 친구들은 죽겠다며 살려 달라 소리 치고 있었다. 그런데 배에 탄 형들은 노를 저어 내뺐 뒤 저 멀리서 우리들을 향해 빨리 오라고 소리 질렀다. 우리 다섯 명은 죽기 살기로 배를 향해서 손짓, 발짓하며 나아갔다. 10m 쯤 배에 가까이 다가가지 작은 배는 10m 정도 가버렸다. 살아 있는 것이 다행이라 다시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리기 시작했고 끝내 형들이 배위로 우리들을 올려 주었다. 세 명은 비실비실 쓰러지고 두 명은 구토를

하며 넘어지긴 했지만 무사히(?) 선창가에 도착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 후부터는 저절로 수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배영, 자유형 등을 배웠다. 세월이 지나 뒤돌아보니, 그 때는 일팔결에 물을 게 없어 두려운 게 없던 시절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여하튼 그 사건으로 인해 바닷물에 대한 두려움은 어느 정도 극복되었다. 지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말이다.

어름이면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모래구짜로 가서 게나 조개를 잡거나 아니면 솔개해수욕장에서 수영을 즐겼다. 솔개해수욕장은 지금 호남정유가 들어서 있는 곳이 중심이었다. 옛날에는 용당동과 감만동의 경계를 이루는 큰골까지 소나무가 많아

솔포(송포)로도 불렸다. 그 많던 소나무는 현재 거의 볼 수 없다. 솔개해수욕장 인근에 토산과 용당동 석산이 있어 그 석산을 발파하여 부산항 방파제 축조와 항만 시설에 사용했다.

감만동에는 솔개해수욕장과 함께 모래구짜의 풍경을 잊을 수 없다. 모래구짜라는 지명은 일제강점기에 ‘모래가 많은 바닷가 입구’라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구짜(口)’는 입구를 뜻하는 일본어이다.

필자가 어릴 때만 해도 솔개와 모래구짜를 잇는 600미터 정도 길이에 폭이 20미터 정도의 경치가 아름다운 백사장이 있었다. 물이 맑아 많은 시민들이 그곳에서 해수욕을 즐겼다.

모래구짜에는 선착장이 있어 어선이 많았고 싱싱한 고기가 많이 잡혔다. 덕분에 인근 주민들은 생선을 값싸고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부산의 이름난 횡집들도 여러 장사를 했다. 하지만 1970년



1951년 감만동 모래구짜 모습.

대 후반 부산항만 확장사업의 일환으로 일대 해안을 모두 매립해 부두가 축조되고 항만 도로가 재 정비되면서 아름다운 백사장을 간직한 모래구짜와 솔개해수욕장은 추억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더불어 고기잡이배들도 그에 따른 어촌 풍경도 모조리 휘발되어 버렸다. ‘벽해상전’의 도도한 흐름을 막을 길이 있었으랴 만은 회색 콘크리트가 추억을 덮어버렸다 생각하니 늘 가슴이 한 구석이 저민다.

## 만리성, 성벽이었나 고인돌이었나

팍태옥의 바람고개 이야기

문현동 萬里城의 진실



사람 키보다 크고 작은 바위들이 문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돌산마을까지 줄지어 서 있었다고 한다. 이를 일컬어 ‘만리성(萬里城)’이라 했다고 하니 고인돌 행렬은 아닌 듯하다. 포털 사이트 지도검색에는 직선거리로 800m를 훌쩍 넘는다. 포장도로가 없던 그 옛날 ‘S’자 형태의 길을 따라간다고 치면 돌 사이의 간격이야 어찌 되었건 최소 1km 이상이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만리성이라는 이름도 엄청나게 많은 병력을 ‘백만 대군’으로 표현하던 옛 방식대로 붙여졌지 싶다. 언제 만리성이 축조되었는지 구전된 바는 없다. 하지만 언제 사라졌는지는 분은 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관사나 사택 정원 꾸미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 돌 돌을 빼어가기 시작해서 1925년 좌전동 해안 매립 때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 당시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동원해 문현초등학교 서편 야산을 허물어 토사를 채취해 갔다고 하는데 하필 만리성이 서 있던 쪽이었다.

문현여자중학교 앞 현 이면도로에 레일을 깔아서 삼성아파트 후문 쪽 이른바 ‘흙구디(흙구덩이)’까지 흙과 돌을 실은 광차(鑛車)를 밀고가 그곳에 부러놓으면 트럭으로 옮겨 싣고 좌전동 매립지까지 날랐다고 한다. 그때 사라진 만리성 이야기를 해주신 분은 올해 아흔 다섯 살 되신 어느 집안의 며느님인데, 본인은 시아버지에게, 시아버지는 뒷태 어른들에게 들었다고 했다. 이 어른의 입항조계서 1800년대 초·중반 고동골에 정착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만리성 축조는 그 이전의 조선 중기 또는 더 먼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겨우 단초를 잡을 정도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만리성이 왜 축조되었는지 궁금해지는데, 여말선초(麗末鮮初) 무렵 일본 열도에서 청결한 왜구(倭寇)를 주복하게 된다.

우리 남구는 대연동을 후면에 두고 용호, 용당, 감만, 우암동이 바다와 닿아 있고, 문현동은 부산 앞 바다로 직결되는 동천을 옆에 끼고 있어 선박을 이용한 왜구의 침입이 용이하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부산포 해전에도 왜선 470여 척이 선창 동편에 정박해 있는 것을 보고 공격을 개시하니 혼비백산한 왜군들이 배를 버리고 산으로 달아나 웅천 태세를 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선창 동편과 산은 각각 동천과 황령산을 지칭한 것으로 유추된다. 우리 남구에서 특히 감만포(鐵鑛浦)에는 조선 전기 왜구의 침입에 대비해 경상북도수군절도사영이 설치된 기록도 있다. 또 대연동 우룡산을 문현4동 쪽에서 오르다 보면 산꼭대기 이르러 부산항 내해와 영도, 우암, 감만, 동천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잠자터’가 있다. 만약 영도 앞 바다에 왜선이 나타나면 초병이 즉각 서편 야산을 허물어 토사를 채취해 황령산 봉수대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위치다.

이제 따라 좌수영에서 군사가 출동하는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만리성 축조 의문도 조금 풀린다. 동천을 통해서 상륙한 왜구들이 황령산을 따라 내륙으로 침범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성벽 기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만리성은 왜 사라졌을까? 먼저, 감만동은 ‘오랑개(왜구)를 쳐서 물리치다’라는 뜻에서 동 이름이 유래했다. 또 왜구를 토벌한 고려 말의 명장 최영 장군을 기리기 위한 사당으로 장군의 시호를 붙인 무민사(武愍祠)도 있다.

일제는 강점기 동안 독수리가 비상하는 지형을 닮았다는 감만포를 매립하였고, 우암동과 감만동 일대를 ‘적기(赤崎, 아까사키)’로 개칭해 부대를 주둔시켰으며, 무민사를 헐고(1968년 재건립) 그 자리에 고사포를 설치하는 등 우리의 강토와 민족정신이 깃든 성지를 유린하였다. 만리성이 정말 실재했다면 이 역시 일제에 의한 왜구의 흔적 지어 기였다고 추정된다. 유구(遺構)마저 흔적조차 없으니 더욱 그러하다.

소설가·항토사연구가

##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강연

평생학습도시 남구가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강연 중에서 눈여겨 볼 강연을 엄선해 지면으로 소개하는 ‘알쓸신강(알아두면 쓸데 있는 신비한 강연)’을 연재합니다.

이번 호에는 지난 7월 5일 남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개는 개이고 사람은 사람이다’의 저자, 이삭애견훈련소 이용중 대표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 특강을 소개합니다.

## “개를 사랑한다면 개를 개 취급하세요”

평생교육과 주관 원조 ‘개(犬)통령’ 이용중 대표 초청 강연회

### 반려견 교육의 목적

개를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애완견의 시대를 지나 친구이자, 가족이자, 동반자로 함께 소통하는 반려견의 시대가 왔다. 그에 따라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보호자의 책임이 막중해지고 있다. 아무리 순한 종이라 하더라도 개는 공격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그 공격성은 보호자가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므로 ‘반려견에 대한 보호자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교육의 목적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 잘못된 교육을 함에 따라 반려견의 잘못된 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때가 많다. 개들은 사람 사는 공간에 들어와 삶의 방식을 사람들에게 맞춰야하고, 사람들은 개를 사랄처럼 대하더라도 함께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인간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개에게 맞는 정확한 교육을 하는 것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의 시작이다.

### 성장시기에 따른 교육

개는 생후 3개월부터 사회성 교육을 시작해야한다. 사회로 나갔을 때 문제행동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교육이다. 여러라고 집에서 과잉보호를 하기 보다는 집밖으로 나가 다른 개들을 만나게 해주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면서 낯선 환경에 적응시켜주는 것만으로도 큰 문제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

더불어 이 시기에는 장난감으로 놀아주는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 개가 사람이 없을 때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장면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장난감을 사람이 있을 때 가지고 놀 수 있는 물건’이라는 것을 인지시키면 개도 혼자 있을 때는 휴식을 하게 된다.

신체의 변화가 나타나는 생후 10개월이 되면 서열 교육이 필요하다. 개는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개보다 높은 서열에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만 다음 단계의 교육이 수월해진다.

생후 1년이 지나 짚는 소리가 커지기 시작할 때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상을 지양해야한다. 짚을 때 간식을 주고, 산책을 나가 다른 개들을 만나게 해주고, 사람이 만나게 해주면서 낯선 환경에 적응시켜주는 것만으로도 큰 문제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

### 정확한 기초 교육

교육의 가장 기초인 ‘앉아, 옆드러, 기다려, 이리

와, 옆에, 하우스’만 잘해도 문제견은 생기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역시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각 단계의 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먼저 고민하면 쉬워진다. ‘앉아, 옆드러, 기다려’는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이리와, 옆에’는 통제를 위해서, ‘하우스’는 분리불안 해소를 위해서 하는 교육이다.

각 단계의 교육이 잘 됐을 때의 좋은 점을 나열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결국, 보호자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 반려견의 행동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 개는 개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개를 사랑한다면 개를 사람처럼 대하지 말고 개로 대해야 한다. 일상생활을 할 때는 가족처럼, 친구처럼 대하더라도 교육을 할 때는 정확하게 개로 대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예뻐하는 것과 교육 중에 칭찬하는 것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반려견 교육을 해야한다.

개를 위해서, 개와 함께 살아가는 보호자를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반려견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교육이다. 개를 개로 대하는 올바른 교육을 통해 ‘반려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란다.

정리 = 김윤경 주무관  
(소통감사담당관)

##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7, 4078, 1225honey@korea.kr

산따라가 물 따라

## 산행을 떠나요

〈2019. 8.〉

구분	산악회	산행일자(요일)	장소	연락처
대연동	연포산악회	8.11.(일)	함양 농활정	010-5464-7845
	약천산악회	8.21.(수)	거창 월성계곡	010-4655-4370
	백호산악회	8.14.(수)	지리산 대성계곡	010-5621-4007
	산사량산악회	8.18.(일)	강원도 통강 래프팅	010-2024-2892
	남구자유산악회	8.4.(일)	안동 천지갑산	010-5576-8142
용호동	대송산악회	8.11.(일)	남원 지리산 달궁계곡	010-2559-2641
	하나로산악회	8.7.(수)	하동 외산계곡	010-3837-6206
	용신산악회	8.11.(일)	산청 등무림산 백운계곡	010-4657-7051
	청산산악회	8.4.(일)	거제 산달도 트래킹	010-8008-2087
	산이뿔산악회	8.25.(일)	진안 문일암, 반일암	010-9329-3560
용당동	용호산악회	8.25.(일)	충북 영동 백화산	010-9497-4575
	여명산악회	8.4.(일)	함양 여명면 별천계곡	010-2582-4254
	간세기산악회	8.11.(일)	지리산 거름계곡	010-7563-1943
	용마산악회	8.11.(일)	구례 화엄사계곡	010-2692-1170
	오솔길산악회	8.18.(일)	지리산 국골계곡	010-2807-1192
감만동	문현2동산악회	8.11.(일)	지리산 대원사계곡	010-2902-8322
	문산산악회	8.11.(일)	함양 용추계곡	010-8466-8662
	산누리산악회	8.4.(일)	함양 대봉산 지소골	010-4035-3432
문현동	채운산악회	8.25.(일)	함양 영취산 부전계곡	010-3621-4007

※ 산악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산행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산행 일정은 산악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리지역 일자리 알리판

〈2019. 7. 23. 기준〉

회사명	근무지	모집직종	모집인원	모집기간	임금조건	연락처
(주)태림개발	문현동	건축시공 기술자	1명	19. 7. 23. ~채용시	월급 2,500,000원 ~ 3,000,000원	051-633-3775
(주)휴먼빌리지	문현동	빌딩 전기관리원	4명	19. 7. 23. ~채용시	월급 2,150,000원 ~ 2,250,000원	051-647-9620
(주)스카이이노텍	용호동	전기 전자 부품 제품 조립원	1명	19. 7. 23. ~채용시	연봉 22,000,000원 ~ 32,000,000원	051-626-6822
다월방문산후조리	대연동	산후 조리종사원	9명	19. 7. 23. ~채용시	월급 1,750,000원	051-626-2002
구세군부산요양원	대연동	사회복지사	1명	19. 7. 23. ~채용시	월급 1,900,000원	051-623-3323
문지윤 식품연구소 율가문	대연동	제과 제빵원	2명	19. 7. 23. ~채용시	시급 8,500원	051-902-2018
(주)회원 엔지니어링	문현동	엘리베이터 설치 정비원	2명	19. 7. 23. ~채용시	연봉 24,000,000원 이상	051-636-6526
스마트씨엔에스	우암동	CCTV 설치 수리원	1명	19. 7. 23. ~채용시	월급 2,500,000원	051-894-0005
임해누리로소복지 생활협동조합	용호동	간호조무사	1명	19. 7. 23. ~채용시	월급 1,750,000원	051-647-7007
오륙도요양병원	감만동	자동차부품 설치기사	1명	19. 7. 23. ~채용시	월급 3,000,000원	010-3580-2529

※ 대한민국 모든 일자리 정보(worknet)와 연계  
※ 남구 취업정보센터 ☎607-4347~8 Fax. 607-4349

○ 8월은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간 : 2019년 8월 16일~2019년 9월 2일

지방세는 전국은행 ATM기, 인터넷, 장애인 금융 무인수납기, ARS, 편의점 또는 지방세 납부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http : //etax.busan.go.kr 접속 전자납부  
- ATM기에 신용(현금)카드 삽입 후 화면상 “지방세납부” 메뉴 이용  
- 납부전화 1544-1414, 편의점(CU, GS25 등)  
-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 납부계좌에 계좌이체 납부

전자고지, 자동이체 모두 신청시 1장당 500원 세액공제

## 남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서비스」 안내

남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여성가족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남구청의 지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와 사회진입을 돕는 전문기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퇴학 △삼강육교에 진학하지 않은 만9~24세 사이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 도시락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정기적으로 도시락 지원(연간 총 480개, 매달 최대 40개 도시락)  
☐ 치과진료 지원  
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 나눔봉사단 치과의원에서 치과

과검진 및 진료 무료 지원  
☐ 건강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여성가족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정기 건강검진(신체계측, 혈액검사, 간염검사, 구강검사, 잠복결핵검진 검진) 지원  
☐ 위생용품(생리대) 지원  
경제적 부담으로 위생용품 구입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생리대를 월 1봉씩 지원

문의 : ☎1388 또는 051-621-4831  
대상 : 9세~24세의 학교 밖 청소년 (단, 건강검진은 만9세~18세 이하, 잠복결핵검진검진은 만15세~18세)  
신청 : 사전 전화 문의 후 본 센터 방문을 통한 직접 신청  
위치 : 대연1동 행정복지센터 5층 ☞유령광화로 24(대연동)